

키스 해링·오스카 무리조...해외 거장들이 몰려 온다

December 3, 2018 | 김미희 기자

page 1 of 4







◀ 앵커 ▶

미국 팝아트의 슈퍼스타 '키스 해링'부터 세계적인 디자이너 '재스퍼 모리슨', 떠오르는 스타 작가 '오스카 무리조'까지.

올 연말 해외 미술 거장들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풍성합니다.

김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

◀ 리포트 ▶

영국의 추상화가 오스카 무리조는 에너지를 쏟아낸 듯 강렬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.

주로 붉은색이 쓰이는 그의 작품에는 불안과 분노 등 여러 감정이 담겨 있는데, 전시장에 드리워진 검은 천들에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표현했습니다.

[오스카 무리조/추상작가]

"저의 신체적 에너지를 궁극적으로는 캔버스와 전시장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. 또 국경을 넘어서 세계가 편안하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. "

이번 전시에는 그림의 이면에 담긴 무의식의 흐름을 담아내듯 촬영한 비디오 영상도 함께 선보입니다.

MBC뉴스 김미희입니다.